

철저한 성과평가로 신뢰 쌓으니 교육·연구 역량 쑥쑥

표대학 평가 1년만에 20계단 도약 **동국대** 지속성장 비결

동국대학교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 중 하나다. 그 대표적 지표가 대학평가 순위다. 동국대는 지난 5년간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한번도 순위가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동국대는 국내 일간지 대학평가에서 17위(2010년)→14위(2011년)→13위(2012년)→13위(2013년)로 매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해외의 대학평가에서도 상승세는 그대로 확인된다. 동국대는 201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9위로 2013년에 비해 20계단이나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국내 3위(아시아 17위)로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학생중심 경영...연구·교육 인프라 확충 7년 꾸준한 투자 국제논문 게재 5배, 정부지원금 4배...5년만에 괄목성장

◇성장 기반은 성과평가시스템=동국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성과평가시스템이 있다. 동국대는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7년 만에 교육과 연구, 장학, 국제화,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지표상승을 이뤄내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김희옥 총장 부임 이후 학내 구성원간 소통과 신뢰가 정착되면서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대학으로서 새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말 동국대의 각종 통계를 집계한 결과는 그러한 성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분야의 경우 국제지명논문의 경우 2007년 도입 당시 66편(환산편수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303편으로 5배 가까이 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또 정부지원연구비 입금액도 2007년도에 175억원에서 2013년 627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허등록 건수도 2007년 13건에서 2013년 기준 113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2009년 42.3%였던 취업률이 지난해 60%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분야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는 2007년에 225명에서 2013년 130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외국인 교원도 2007년 32명에서 지난해 98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도약을 통해 2013년 국내외 아시아 대학 평가 국제화 분야에서 국내대학 4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고수준의 국제화를 이뤄냈다. 재정분야도 크게 좋아졌다. 2007년 63억원에 불과했던 발전기금 모금액은 지난해 30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학생교육비도 2007년 1인당 940만원에서 2013년 144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학생 장학금도 2007년 1인당 58만원에서 2013년 242만원으로 급증했다. ◇학생 중심 경영=동국대는 이 같은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지난 7년여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교육과 연구인프라를 확대하고 학생중심의 대학경영을 해왔다. 최근 신공학관, 산학협력관, 종합강의동, 약학관을 신축한 데 이어 바이오관이 올 하반기 완공된다. 또 대형 기숙사인 남산학사 준공에 이어, 올해 다시 제2기숙사를 착공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 이처럼 대학경영 혁신을 통해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 것이 동국대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동국대가 이처럼 변화를 일궈낼 수 있었던 데에는 25만 동문의 관심 어린 기부가 자리하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해 기부금 모금액수가 309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연구 인프라와 기부금 모금이 크게 확대되자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사회진출에도 크게 탄력이 붙었다. 2008년 8건이었던 국책사업 수주 건수는 2012년 2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고시 합격자도 크게 늘었다. 2013년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 9위를 차지했고, 법원시험에서는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 2014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84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며, 인선시와 세종시에서는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5년 동국대 입시전형

수시 4개 정식 1개로 전형 간소화 논술전형, 교과 40% 논술 60%로

2015학년도 동국대 수시모집은 수시 학생부 위주(종합)전형, 수시 학생부 위주(교과)전형, 수시논술 위주 전형, 수시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27일 동국대 입학처(처장 고진호)에 따르면 수시 학생부 위주(종합)전형에는 ▲Do Dream (254명) ▲국가보훈 및 지역인재(53명) ▲농어촌(55명) ▲기회균형(45명) ▲특성화 고졸 재직자(59명) 전형으로 총 466명을 선발한다. 수시 학생부 위주(교과) 전형에는 ▲학교생활우수인재(334명) ▲불교추천인재(108명) 전형으로 총 442명을 선발한다. 수시 논술전형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499명을, 실기위주(어학, 문학, 연기, 체육) 전형으로는 120명을 각각 선발한다. ◇학생부위주 전형확대, 7개 전형 908명 선발=254명을 뽑는 동국대의 대표 전형인 학생부 위주 종합 'Do Dream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성적 60%, 면접 40%로 평가해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면접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Do Dream 전형 면접을 심층 면접 대신 일반 면접으로 바꾸고 포트폴리오, 교사추천서, 독후감 등 복잡한 서류제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게 했다. 44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 위주(교과)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으로 334명을, 불교추천 인재로 108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성적 60%·서류심사 20%·면접 2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논술전형, 교과 40%·논술 60%로 선발=올해 논술 우수자 전형은 지난해보다 23명 줄어든 499명을 뽑는다. 전형방법은 논술 60%와 학생부 교과 40%를 평가해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동국대 논술은 전년에 비해 학생부 영향력을 낮추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등 논술실력으로 당락을 결정짓게해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실기 위주 전형은 어학특성, 문학특성, 연기특성, 체육특기로 나눠 120명을 선발한다. 어학특성자와 문학특성자는 학생부 40%, 실기 60%로 일괄 선발한다. 연기특성자는 1단계에서 면접 30%와 기초실기 70%로 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40%와 종합실기 60%로 선발하고 수능최저 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특성자는 학생부 교과 10%, 면접 30%, 경기실적 60%로 일괄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입전형 간소화, 수시 지원자격 확대=2015학년도 수시 전형은 전형방법을 수시 4개와 정식 1개로 크게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시 지원자격도 확대해 수시의 경우 3수생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하되 Do Dream / 국가보훈 및 지역인재 / 학교생활우수인재 / 불교추천 인재 전형에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생들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논술우수자 / 특기자 전형에 검정고시와 해외 고교 출신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또 지난해 701명을 모집했던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모집정원을 908명으로 207명 증원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진호 입학처장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명진관 전경.

컴퓨터공학과, 기업들이 뽑은 전국대학 최우수학과 '융합교육의 산실'



동국대 컴퓨터공학과가 올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결과 '컴퓨터공학' 분야 최우수학과에 선정됐다. <사진> 지난 2008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해 오고 있는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는 경제 5단체(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의 협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해 대학의 교육과정 산업계 요구와 얼마나 일치하고 교육성과는 어떠한지를 평가해 발표하는 것이다. 올해 평가는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SW), 정유 석유화학, 정밀화학(화장품) 등 5개 산업분야 관련 학과 설치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43개대 112개 학과를 대상으로 했다. 동국대 컴퓨터공학과가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서울어코드 등 다양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학교육 인증을 통해 다른 공학분야와 융합적 교육이 활발해졌고 학제적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는 학생의 역량 향상과 실무 공학 기술 습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하면 학생들은 자기역량을 기술하고 평가받은 후 졸업 시까지의 비전을 세우는 드림패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습계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뽕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